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내 손으로 만들면 더 아깝다, 이케아 효과(IKEA Effect)

원문 주소

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0532/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설명서를 펼쳐 놓고 나사를 하나씩 조여 가며 겨우 완성한 책장은 어딘가 조금 삐뚤어져 있어도 유난히 마음에 듭니다. 가게에서 다 만들어진 똑같은 책장을 샀다면 그만큼 애착이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같은 물건인데도 내 손을 거쳤다는 사실 하나가 그 물건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.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'이케아 효과(IKEA Effect)'입니다. 이케아 효과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거나 조립하는 데 참여한 물건에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매기는 인지 편향을 의미합니다. 이름은 손님이 직접 조립해야 하는 가구를 많이 파는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에서 따왔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이케아 효과가 이름을 얻게 된 배경과 이를 확인한 실험, 이 효과가 생기는 심리적 이유, 그리고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내 손을 거치면 더 귀해지는 이유 노력이 가치를 만든다는 생각의 뿌리 이케아 효과라는 이름은 비교적 최근에 붙었지만, 노력과 가치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심리학의 관심사였습니다. (1) 이름을 붙인 세 연구자이 효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노턴(Michael Norton), 예일